

류현진, 생애 첫 이주의 선수 선정



LA 다저스 류현진(32)이 미국 메이저리그 데뷔 후 처음으로 '이주의 선수'로 선정됐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14일(한국 시간) "내셔널리그 이주의 선수로

류현진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류현진은 지난주 2경기에서 17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다. 15개의 삼진을 잡아내는 동안 볼넷은 1개, 안타는 5개만 내줬다"고 설명

“지난주 2경기 17이닝 무실점” 설명 박찬호 최초...한국 선수 역대 5번째

했다. 그야말로 완벽투였다. 류현진은 지난 8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전에서 9이닝 4피안타 6탈삼진으로 무실점으로 완봉승을 거뒀다. 투구 수는 93개에 불과했다. 지난 13일 워싱턴 내셔널스와 경기에서도 8이닝 1피안타 1볼넷 9탈삼진 무실점으로 승리를 챙겼다. 8회 1사까지 노히트 노런을 이어가는 등 압도적인 피칭을 펼쳤다.

2경기 연속 홈 잡을 데 없는 역투를 펼친 류현진은 2013년 바리그진출 후 첫 이주의 선수 영광을 안았다.

코리안 메이저리거로는 역대 5번째 수상이다. 앞서 2000년 9월 박찬호(당시 LA 다저스가 한국인 선수

로는 처음으로 이주의 선수에 선정됐다. 이어 2002년 7월 김병현(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이 수상했다.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서 뛰던 2010년 4월과 9월, 두 차례 이주의 선수에 올랐다. 가장 최근에는 강정호(피츠버그 파이리츠)가 2016년 9월 이주의 선수로 뽑혔다.

한편, 아메리칸리그 이주의 선수로는 마이크 피아이스(오클랜드 애슬레틱스), 조지 스프링어(휴스턴 애스트로스)가 선정됐다.

피아이스는 지난 9일 신시내티 레즈전에서 노히트노런을 달성했다. 스프링어는 지난 한주 동안 타율 0.519, 5홈런 10타점을 쓸어 담았다.

뉴시스



13일 인천 스키야드72 하늘코스에서 열린 SK텔레콤 오픈 2019 재능 나눔 행복 라운드를에서 최경주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베테랑’ 최경주, SK텔레콤 오픈 최다 우승 기록 경신하나 올해로 19번째 참가...이미 3차례 우승

한국 프로골퍼의 말뚝 최경주(49·SK텔레콤)가 자신이 보유한 SK텔레콤 오픈 최다 우승 기록(3승) 경신에 도전한다. 최경주는 16일부터 나흘 동안 인천 영종도 스키야드72 골프&리조트 하늘코스(파71)에서 열리는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안투어 SK텔레콤오픈에 참가한다.

SK텔레콤오픈은 최경주에게 익숙한 대회다. 작년까지 22차례 열린 SK텔레콤오픈에 18차례 출전해 최다 출전 기록을 갖고 있다. 이번 대회로 19번째 출전 기록을 세운다.

또 2003, 2005, 그리고 2008년에 이 대회 정상에 올라 최다 우승 기록도 보유 중이다. 대회를 주최하는 SK텔레콤은 최경주의 메인 스폰서다.

지난달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RBC 헤리티지에서 10위에 진입하는 등 건재를 과시하고 있는 최경주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한다면 2012년 CJ 인비테이셔널 이후 약 7년 만의 우승이자 개인 통산 29번째 우승을 챙기게 된다. 다른 선수들의 도전도 이어진다.

지난주 휴온스 엘라비에 셀러 브리티 프로암에서 우승한 전가람(24)은 2개 대회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성공하면 시즌 첫 다승자가 탄생하게 된다.

전가람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생각하지만 한 홀, 한 타 최선을 다하겠다”며 “첫 승은 잊고 새롭게 도전하는 마음으로 대회에 임하겠다. 좋은 흐름을 이어가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장타왕’ 김대현(제노라인)의 상승세도 눈에 띈다. 2개 대회 연속 상위권을 차지하며 우승을 넘보고 있다.

김대현은 “개막전 때는 ‘부어’에 다시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점차 성적을 내면서 자신감을 찾았다. 이제는 우승을 넘볼 때가 된 것 같기도 하다”며 “실력 있는 뛰어난 선수들이 총출동하는만큼 매 라운드 전력을 다해 플레이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지난해 전장 7085야드에 파72였던 대회 코스는 전장 7040야드에 파71로 조정됐다. 또 파 5홀 10번 홀이 올해는 514야드짜리 파 4홀로 바뀌었다.

KPGA는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뉴시스

“LA다저스, MLB 파워랭킹 1위”...이게 다 류현진 덕분

ESPN 류현진 활약상 집중 조명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과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이 주간 파워랭킹 1위로 LA 다저스를 선정했다. 류현진(32)의 맹활약이 근거다.

ESPN은 14일(한국시간) 메이저리그(MLB) 30개 구단의 주간 파워랭킹을 정해 공개하면서 다저스를 1위에 올려놓았다. 다저스는 27승 16패를 기록해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

위를 질주 중이다.

3주 연속 다저스를 파워랭킹 1위에 올린 ESPN은 “류현진을 리그 최고의 좌완 투수 중 한 명으로 인식하기 시작할 때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류현진은 사타구니 부상에서 복귀한 지난해 8월 16일 이후 17경기에 선발 등판해 평균자책점 1.78을 기록했다. 삼진과 볼넷 비율은 107:8”이라며 “올 시즌 8경기에 선

발 등판한 류현진이 한 경기에 2점 넘게 준 적이 없다”고 소개했다.

ESPN은 류현진이 8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전에서 9이닝 4피안타로 완봉승을 거뒀고, 13일 워싱턴 내셔널스전에서 8이닝 1피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했다고 덧붙였다.

ESPN은 지난 주 다저스를 파워랭킹 1위에 올리며 코디 벨리저와 류현진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류현진의 활약상만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MLB닷컴은 전날 30개 구단의 파

워랭킹을 공개하면서 다저스를 1위에 올려놓고 “지난 주 홈에서 5승 2패를 기록했는데 수훈 선수가 너무 많다 하지만 이 공간은 류현진을 위해 사용하겠다”며 그의 활약에 주목했다.

이 매체 또한 류현진의 8, 13일 등판 내용을 극찬했다. “류현진은 24이닝 연속 무실점 행진을 벌였고, 올 시즌 8경기에서 평균자책점이 1.72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주 13위에서 17위로 떨어진 워싱턴이 가장 순위가 크게 하락한 팀이라고 소개한 MLB닷컴은 “워싱턴이 원정 10연전에서 3승 7패에 그쳤고 다저스 좌완 류현진을 상대로는 거의 안타를 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오타니, 첫 홈런 포함 멀티히트...시즌 타율 0.250 ↑



오타니 쇼헤이(LA 에인절스)가 14일(한국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타깃필드에서 열린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3회초 홈런을 때려내고 있다.

LA 에인절스 오타니 쇼헤이(25)가 시즌 첫 홈런을 때려냈다.

오타니는 14일(한국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타깃필드에서 열린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3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3타수 2안타 1홈런 2타점 2볼넷 1득점을 기록했다. 1회초 2사 후 맞은

첫 타석에서 볼넷으로 걸려나간 오타니는 1-2로 뒤진 3회 두 번째 타석에서 홈런을 터뜨렸다. 무사 3루에서 타석을 선 그는 볼 카운트 3볼 1스트라이크에서 상대 선발 호세 베리오스의 5구째 92.5마일 포심 패스트볼을 공략해 중월 투런 포로 연결했다.

올 시즌 첫 홈런이다. 2018 아메리칸리그 신인왕을 차지했던 오타니는 지난 시즌을 마친 뒤 오른쪽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을 받고 재활 과정을 거쳤다. 지난 8일 바리

그에 복귀한 그는 6번째 경기에서 첫 홈런을 쏘아 올리며 ‘야구 천재’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4회 2사 1, 2루에서는 2루수 더블플레이로 물러났다. 6회 2사 1루에서는 또 한 번 볼넷을 골라냈다. 9회에는 선두타자로 나와 우전 안타를 쳐 멀티 히트를 작성했다.

오타니는 이날 경기 전까지 5경기에서 타율 0.190(21타수 4안타) 3타점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날 첫 홈런을 포함해 멀티 히트를 때려내며 시즌 타율은 0.250로 올랐다.

에인절스는 오타니의 활약을 앞세워 미네소타를 5-4로 이겼다. 시즌 20승(21패)째를 달성했다.

■ 심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년 구례군은 지리산순천, 창세미골, 회현사, 선진강,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야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광고 마케팅 전문기업 | 전화 062/224-5800 | 팩스 062/222-5548